

『遵生八牋』의 ‘論泉水’에 관한 研究

¹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홍진임¹ · 윤창열¹ *

Discussion on Spring Water(論泉水), a Study from *Junsangpaljeon*(遵生八牋)

Hong Jin-Im¹ · Yun Chang-Yeol¹ *

¹Dept. of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Objectives : Evaluating water and its comparisons to Yin(陰) and Yang(陽). In this section, we will look into this matter from *Dongeuibogam*(東醫寶鑑) and introduce an oriental perspective on the subject of water(水部).

Methods : Translating *Eumchanboksikjeon*(飲饌服食牋) from *Junsangpaljeon*(遵生八牋). An in depth study of related contents and comparing to the water section(水部) of *Dongeuibogam*(東醫寶鑑)

Results : According to the section of Varieties of Teas and Water(茶泉類) in The Discussion of Springs(論泉水), Goryum(高濂) divided water into five different types in *Eumchanboksikjeon*(飲饌服食牋) of *Junsangpaljeon*(遵生八牋). These different types are Water that runs between rocks, Clear and cold water, Sweet and fragrant water, Spiritual water and Well water. *Dongeuibogam*(東醫寶鑑) also analyzed 28 different types of water out the 33 its list. The idea is that one must use water differently according its origins, where it originated, when and what season to maximize the usage of the water because the energy of water would be different.

Conclusions : By evaluating water, we have learned that water picks up energy and changes according to its surrounding environments. The different types of water used changes the medicinal ingredients and it affects the human body differently. One must keep in mind, the cycles of water, its energy and how it helps us live a healthier life.

Key Words : Water, *Junsangpaljeon*(遵生八牋), The Discussion of Water(論泉水), *Dongeuibogam*(東醫寶鑑), The water section(水部)

I. 서론

* Corresponding Author : Chang Yeol, Yun.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
Yongun-dong, Dong-gu, Daejeon.
E-mail : yoency@dju.ac.kr, Tel : 042-280-2601.

접수일(2014년 07월15일), 수정일(2014년 08월16일),
게재확정일(2014년 08월20일).

물은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면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본물질이기도 하다. 서양에서는 물의 구성성분을 분석하여 여러 가지 물로 구분하고 먹어서 좋은 물과 나쁜 물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동양에서는 과학적인 분석도구가 없었던 고대부터 물에 대한 끊임 없는 관심과 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고대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던 중국의 경우 唐나라 陸羽가 쓴 『茶經』에서 물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 졌다. 차는 어떤 종류의 물을 가려 쓰느냐에 따라서 차의 四奇 즉, 色, 香, 氣, 味가 드러나기 때문에 물의 품질을 가려서 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¹⁾. 水를 연구한 문헌으로는 中國의 唐代 陸羽의 『茶經』과 張又新的 『煎茶水記』, 宋代 歐陽脩의 『大明水記』, 明代 屠隆의 『考槃餘事』, 錢椿年的 『製茶新譜』, 田藝蘅의 『煮泉小品』 등이 있다²⁾. 현대에 와서도 차와 관련된 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연구로는 문헌(文獻)을 통한 찻물 고찰³⁾, 周易에 나타나는 ‘물’과 ‘茶水’의 상관관계 연구⁴⁾, 중국의 찻물 평가와 지리배경⁵⁾ 등이 있다. 반면 최근 한의학 연구에서는 물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한의학에서는 『本草綱目』과 『東醫寶鑑』에 「水部」를 두어 물에 대해 전문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모두 책의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거나 분량이 많지 않아 약제에 비해서는 그 중요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까지 현대에 와서 동양적인 관점에서의 물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동양의 물에 대한 관점에 대해 연구해 보고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에 論者は 명나라 때의 대표적인 養生서적인 『遵生八牋』에서 논하고 있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東醫寶鑑』 「水部」에 나오는 물의 분류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遵生八牋』의 ‘論泉水’에 나오는 물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東醫寶鑑』에 나오는 33종의 물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도 있으나, 동양적인 관점에서의 물에 관한 연구와 소개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II. 『遵生八牋』 ‘論泉水’의 저자와 유래

본 연구자는 高濂이 쓴 『遵生八牋』 「飲饌服食牋」의 ‘茶泉類’에 대해 연구하던 중 ‘論泉水’ 부분을 보고, 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高濂은 養生家로 浙江省 古杭(지금의 杭州)사람이고, 호는 瑞南道人이며 자는 深甫이다. 『遵生八牋』은 明代 말기에 高濂이 쓴 책이다. 저서로는 『四時修合方』을 지었다는 내용이 『本草綱目拾遺』에 나오고, 다른 저서로는 『仙靈衛生歌』가 있다. 호를 雅尚齋로 쓰기도 하였다. 萬曆 十九年 辛卯(1591)년에 『遵生八牋』을 편찬했다고 中醫圖書聯合目錄에 나올 뿐 더 이상의 자세한 기록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⁶⁾.

『遵生八牋』은 清修妙論, 四時調攝, 起居安樂, 延年却病, 飲饌服食, 燕閑清賞, 靈秘丹藥, 塵外遐舉의 여덟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遵生八牋』이라 하였다. 水와 관련된 내용은 「飲饌服食牋」 ‘茶泉類’에 있다.

‘茶泉類’에 나오는 ‘論茶品’은 明代 錢椿年의 『製茶新譜』와 明代 田藝蘅의 『煮泉小品』의 두 책을 종합하여 대부분 쓰여 졌으며, 『遵生八牋』의 ‘茶泉類’를 참고하여 쓴 책으로는 明代 屠隆의 『考槃餘事』가 있다.

『煮泉小品』의 경우 물에 관한 내용이 깊으면서도 10가지의 기준으로 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⁷⁾ 高濂은 이 중에서 5가지⁸⁾를 취하였다. 차와 관련된

1) 전동복. 文獻을 통한 찻물 고찰.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7. p.2.
2) 김은아. 중국의 찻물 평가와 지리배경.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1. p.2.
3) 전동복. 文獻을 통한 찻물 고찰.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7.
4) 장영동. 周易에 나타나는 ‘물’과 ‘茶水’의 상관관계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11.
5) 김은아. 중국의 찻물 평가와 지리배경.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1.

6) 張鶴之外 二人 主編. 中國歷代人名大辭典(下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p.1990.
7) 金明培. 中國의 茶道. 서울. 明文堂. 2007. pp.273-318. 源泉, 石流, 清寒, 甘香, 宜茶, 靈水, 異泉, 江水, 井水, 緒談의 10가지 品目이다.

내용은 제외하고, 田藝蘅이 실제로 먹어본 물에 대해 평가하는 부분도 대부분 제외하였으며, ‘高子曰’이라는 구절을 넣어서 고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추가하고 있다.

Ⅲ. ‘論泉水’에 대한 연구

연구의 방법은 먼저 원문을 기술하고 번역하였으며 관련된 내용으로 고찰을 하고 특히 『東醫寶鑑』의 水部를 참고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田子藝曰 山下出泉，為蒙禪也。物禪則天全，水禪則味全。故鴻漸曰 山水，上。其曰乳泉石池漫流者，蒙之謂也 其曰瀑湧湍激者，則非蒙矣，故戒人勿食。⁹⁾

田子藝가 말하였다. “산 아래서 물이 나오면 어린 것이 된다. 사물이 어린 것은 천성이 온전하고, 물이 어리면 맛이 온전하다.” 따라서 鴻漸이 말하기를 산에서 나오는 물이上品이라고 하였다. 샘에서 막 나온 물과 바위 사이에서 흐르는 물로 천천히 흐르는 물은 어린 것을 말하는 것이다. 폭포수 같고, 솟구치고 소리를 내어 흐르고, 세차게 흐르는 것은 어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論泉水’는 서론 부분과 石流, 清寒, 甘香, 靈水, 井水의 5가지 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 구분 방법은 물이 나오는 곳, 물의 성질 즉 水氣, 물의 맛과 향기 즉 水味, 물의 신령함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우물물 등으로 분석하여 품평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 문장은 田子藝의 『煮泉小品』 ‘源泉’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田子藝는 田藝蘅의 字이다. 명나라 浙江省 錢塘사람이며, 田汝成의 아들로써, 貢生으로 徽州 訓導를 지냈다. 시를 짓는데 재주가 있었고,

博學能文했다¹⁰⁾고 한다.

田子藝의 말을 인용한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高濂이 ‘論泉水’를 쓸 때 『煮泉小品』을 참고하여 책을 편찬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鴻漸¹¹⁾은 『茶經』을 쓴 陸羽의 字이다. 陸羽는 “산에서 나오는 물은 上品이다.(其水 用山水上)”¹²⁾라 하였고, “산에서 흐르는 물은 샘에서 막 나온 물(流泉), 바위 사이에서 흐르는 물(石池) 그리고 천천히 흐르는 물(漫流)을 선택하는 것이 上品이다. 폭포수 같은 물, 솟아오르는 물이나 소리를 내며 급히 흐르는 물은 마시지 말아야 한다. 이런 물은 오래 마시면 목병이 생긴다.(揀乳泉石池漫流者上 其瀑湧湍瀨勿食之 久食 令人有頸疾。)”¹³⁾라고 하였다. 이는 田藝蘅이 말한 ‘산에서 나온 물이 어리고 그래서 그 맛이 온전하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결국 샘에서 막 나온 물과 바위사이에서 흐르는 물과 천천히 흐르는 물이 어린 물이고, 이런 종류의 물은 먹어도 좋은 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에 폭포수나, 솟구치거나, 소리를 내며 세차게 흐르는 물은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東醫寶鑑』의 「水部」에는 천천히 흐르는 물인 順流水와 빠르게 흐르는 물인 急流水가 있다. 順流水는 “그 성질이 순하면서 아래로 흐르므로 취해서 下焦와 허리와 무릎의 증세 및 二便의 通利를 치료하는 데 쓴다.(其性 順而下流 故 取以治下焦腰膝之證及通利二便之用也(『正傳』).)”¹⁴⁾고 하였고, 急流水는 “여울에서 빠르고 급히 흐르는 물이다. 그 성질이 빠르고 급해서 아래에 도달하므로 특별히 취해서 二便을 通利하는 약을 달이고 또한 足脛 이하의 風藥을 달이는데 사용한다.(卽湍上峻急之流水也 以其性速急而達下 故 特取以煎熬通利二便 及足脛以下之風

8) 高濂은 ‘論泉水’를 石流, 清寒, 甘香, 靈水, 井水 5가지로 구분하였다.

9)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5.

10) 張鶻之 外 二人 主編. 中國歷代人名大辭典(下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p.149.

11) 尹炳相. 茶道古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p.147.

12) 尹炳相. 茶道古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p.196, p.200.

13) 尹炳相. 茶道古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p.196, p.200.

14)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2.

藥也(『正傳』).”¹⁵⁾고 하였다.

高濂과 陸羽, 田藝蘅의 경우 빠르게 흐르는 급류는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東醫寶鑑』에서는 물의 빠르고 느린 성질을 이용하여 증상에 맞는 약을 달이는 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물의 품질이上品이어서가 아니라,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활용하여 藥性を 倍加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混混不舍, 皆有神以主之, 故天神引出萬物, 而『漢書』三神, 山嶽其一也.¹⁶⁾

물이 끊임없이 흘러 그치지 않는 것은 모두 물에 정신이 있어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신은 만물을 이끌어 내는데, 『漢書』에 나오는 삼신은 산악이 그 중의 하나이다.

물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는 원동력은 물속에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이는 물에 動하는 本性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인체에 氣와 血이 항상 흐르는 것은 우리 몸에 정신이 있어 그것을 주재한다고 말함과 같다. 하늘의 신이 천지만물을 냄에 만물 속에는 神의 기운이 머물고, 반고가 쓴 『한서』에 삼신을 말하였는데 山嶽이 그 중의 하나로 산에도 三神의 정신이 깃들고 산속에서 나오는 물에도 역시 神이 머문다고 해석한 것이다.

源泉¹⁷⁾必重, 而泉之佳者尤重. 餘杭徐隱翁嘗為余言, 以鳳凰山泉較阿姥墩, 百花泉, 便不及五泉, 可見仙源之勝矣.¹⁸⁾

근원이 되는 샘은 반드시 무거워야 하는데 좋은 샘은 더욱 무거워야 한다. 餘杭의 徐隱翁이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鳳凰山(절강성 항주시의 남쪽에 있는 산)¹⁹⁾의 샘물을 阿姥墩(절강성 항주

시에 속한 임안현에 아모둔이 있다.)²⁰⁾의 百花泉과 비교해 볼 때, 五泉에 미치지 못하니 가히 仙源의 승함을 볼 수 있다.

근원이 되는 좋은 샘이 무거워야 한다는 것은 샘이 깊고 두텁다는 것으로, 그곳에서 나오는 물도 무겁고 천천히 흘러 역시 좋은 물이 된다는 뜻이다. 鳳凰山에 있는 샘물을 阿姥墩의 百花泉과 비교를 해 보면, 봉황산에 있는 五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무겁다는 의미는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한다면 물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물의 근원이 멀고 깊으면 나온 샘물의 비중이 높고, 비중이 크면 더욱 천천히 흐르게 되는 것이다. 『本草綱目』에 阿井水가 있는데 근원이 무거운 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沈括의 『夢溪筆談』에서 이르기를 ‘옛날에 濟水는 땅 속으로 흘러간다.’고 말하였다. 지금의 歷下지방(현재의 제남)은 모든 물이 땅속에서 솟아나서 흘러가고, 東阿 역시 濟水가 지나가는 곳으로 우물에서 물을 떠서 膠를 고은 것을 阿膠라 이른다. 그 성질이 아래로 내려가고, 맑고 또한 무거운데, 이 아교로 흐린 물을 휘저으면 곧 맑아진다. 그래서 아교는 정제되고 탁하며 위로 역상하는 痰을 치료할 수 있다.(括『筆談』云古說濟水伏流地中, 今歷下凡發地下皆是流水. 東阿亦濟水所經, 取井水煮膠謂之阿膠. 其性趣下, 清而且重, 用攪濁水則清, 故以治淤濁及逆上之痰也.)”²¹⁾고 하였다. 예로부터 濟水는 하남성 濟源縣에서 발원하여 땅속으로 들어가 황하를 가로지르고 산둥성의 東阿縣에서 솟아 나와 濟水를 이루어 흐른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물은 비중이 높아 쇠질 구대도 가라앉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위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물이란 샘이 깊은 곳에서 나오고 비중이 커서 천천히 흐르는 물이 좋은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山厚者泉厚, 山奇者泉奇, 山清者泉清, 山幽者

15)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2.

16)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5.

17) 자천소품의 물에 대한 분류 중 첫 번째 源泉을 말한다.

18)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5.

19) 金明培. 中國의 茶道. 서울. 明文堂. 2007. p.275.

20) 金明培. 中國의 茶道. 서울. 明文堂. 2007. p.275.

21) 李時珍. 陳貴廷主編. 本草綱目通釋. 北京. 學苑出版社. 1992. p.238.

泉幽，皆佳品也。不厚則薄，不奇則蠢，不清則濁，不幽則喧，必無佳泉。²²⁾

산이 후덕하면 샘이 후덕하고, 산이 기이하면 샘이 기이하며, 산이 맑으면 샘도 맑고, 산이 고요하면 샘도 고요하니, 모두 좋은 등급의 물이다. 후덕하지 않으면 곧 천박하고, 기이하지 않으면 곧 어리석고, 맑지 않으면 곧 탁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곧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흐르니, 필시 아름다운 샘이 없게 된다.

산이 후덕하면 그곳의 기운을 받은 샘도 후덕해지고, 산이 기이하면 샘도 기이해지니 모두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사람의 성격도 환경에 영향을 받듯이 물 또한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名山에서 나오는 물과 高山에서 나오는 물은 좋은 기운을 받고 깊은 샘을 이루므로 좋은 물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山不停處，水必不停。若停，即無源者矣，早必易涸。²³⁾

산이 머무르지 않는 곳은 물도 필히 머무르지 않는다. 혹 더러 머물게 되면 근원이 없는 것이니 가뭄에 반드시 쉽게 마른다.

옛사람들의 풍수사상에는 산이 뻗어가는 것을 龍이 달려가는 것이라 하여 龍脈이라 하였고 물은 이 산을 따라서 흘러간다고 여겼다. 龍脈이 뻗으면 물도 따라 흐르는데, 만약 龍脈은 뻗어 갔는데 물이 멈추어서 샘을 이룬다면 근원이 없는 물이 되어 가뭄에 쉽게 마르므로 결코 좋은 물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1) 石流

石，山骨也 流，水行也。山宣氣以產萬物，氣宣則脈長，故曰山水上。『博物志』曰 石者，金之根甲，石流精以生水。又曰 山泉者，引地氣也。²⁴⁾

돌은 산의 뼈대이다. 흐르는 것은 물의 움직임이다. 산은 기를 베풀어 만물을 낳고, 기가 베풀어지면 뻗어나가는 맥이 멀리까지 간다. 그래서 산의 물은 상품이다. 『博物志』에서 말하기를, 돌이란 것은 금의 뿌리가 되며 껍질이다. 돌은 精氣를 흘려보내 물을 生한다(金生水). 또 말하기를 산의 샘물은 地氣를 이끌어서 나온다.

石流는 바위 사이를 흐르는 물을 말한다. 돌은 금에 속하니 오행의 상생관계에서 바위 사이를 흐르는 물은 金生水를 이룬다. 물은 본래 금에서 生하니 石間水가 좋은 물이라는 것이다. 山에서 흐르는 물은 山의 精氣를 머금고 있으므로 山에서 나오는 물이 上品이라는 것이며, 산은 깊고 높아 물이 길게 흘러오므로 역시 좋은 물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이 돌 위를 흐를 때 돌의 精氣가 흘러나와 물에 스며들므로 돌 위를 흐르는 물이 좋은 물이고, 산에서 흐르는 물은 땅의 기운을 끌어내어 그 속에 含藏하고 있으므로 더욱 좋은 물이 된다는 것이다.

초의선사가 쓴 『茶神傳』에서는 “돌 사이에서 나는 샘물은 맑고 달며, 모래 속 샘물은 맑고 차가우며, 흙 속의 샘물은 담백하다. 누런 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좋고, 푸른 돌에서 나오는 물은 쓸 수 없다.(石中泉清而甘 沙中泉清而冽 土中泉淡而白 流於黃石爲佳 瀉出青石無用)”²⁵⁾이라고 하였다. 이 또한 같은 물이라도 어떤 근원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물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泉非石出者，必不佳。故「楚辭」云 飲石泉兮蔭松柏。皇甫曾送陸羽詩 幽期山寺遠，野飯石泉清。梅堯臣「碧霄峰茗」詩 烹處石泉嘉。又云 小石冷泉留早味。誠可爲賞鑑者矣。²⁶⁾

22)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5.

23)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5.

24)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5.

25) 尹炳相. 茶道古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p.72.

26)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샘이 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반드시 좋지가 않다. 그래서 『楚辭』에서 말하기를 “돌에서 나온 물을 마시는 것은 松柏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하였다. 皇甫會가 陸羽에게 보낸 시에 보면 “산사에서 만날 약속을 했는데 산사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어, 돌에서 밥을 먹는데 돌 사이에서 나오는 물이 참 맑구나.” 라고 했으며, 梅堯臣의 『碧霄峰茗』詩에 “밥 짓는 곳에 石泉이 좋더라.” 하였고, 또한 이르기를 “작은 돌 사이에서 나오는 찬물은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맛을 보전하고 있다.” 하니, 진실로 가히 이런 것들은 맛 볼만한 것들이다.

이 구절 역시 앞의 구절을 이어 바위와 돌 사이에서 나오는 물이 특히 좋은 물이라는 것을 거듭 설명하고 있다.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달리 동양에서는 만물에 모두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돌 사이를 흐르는 물은 그 돌의 기운을 취하여 흐르고, 돌과 물은 金生水의 관계가 있어 원리적으로 좋은 물이 된다는 것이다.

泉往往有伏流沙土中者，挹之不竭，即可食。不然，則滲瀦之潦耳，雖清勿食。²⁷⁾

샘이 더러 잠복되어 땅속의 모래나 흙속을 흐르는 것은, 아무리 물을 길어도 마르지 않는 것이니, 가히 먹을 만하다. 그렇지 않다면 장마물이 스며들어 고였다가 나오는 것이니, 비록 맑더라도 마시지 말라.

이 구절은 비록 石間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먹을 수 있는 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래나 흙 사이를 물이 통과하면 물의 불순물이 여과되어 좋은 물이 되고 이것이 끊임없이 나온다면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마물이 고였다가 나온다면 비록 모래나 흙을 통과하여 흘렀을지라

도 좋지 않으니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물은 잠깐 나오다가 그칠 것이니 앞의 길어도 마르지 않는 물과는 쉽게 구별될 것이다.

流遠則味淡，須深潭停蓄以復其味，乃可食。²⁸⁾

먼 곳에서 흘러온 물은 맛이 담백하고, 모름지기 깊은 못에 머물러서 그 맛을 회복하였으니 가히 먹을 수 있다.

먼 곳으로부터 흘러온 물은 흘러오는 동안 여러 곳을 거치면서 여과되어 물맛이 담백해 지는 것으로 보고, 깊은 못에 머무르면 물 본래의 맛을 회복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물로 『東醫寶鑑』에서 千里水, 長流水, 東流水로 설명하고 있다. “千里水是 성질이 짜하고 맛이 달고 독이 없다. 병후의 허약한 증세를 치료한다. 무수히 휘저어서 약을 달이고 신에게 기도할 때 모두 효험이 있다. 長流水는 곧 千里水이다. 두 수가 모두 邪穢를 씻어 낼 수 있고 탕약을 달이고 신명에 기도 할 때 쓸 수 있다. 千里수가 서쪽에서부터 흘러오는 것을 東流水라고 하는데 그 성질이 快順하고 疾速해서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가슴의 답답함을 내려준다. 長流水는 단지 흐름이 길고 멀리서 옴을 취할 따름이니 천리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그 성질이 멀리서 와서 통달하고 구덩이를 채우고 온 것이 이미 많기 때문에 手足四末의 병과 인체에서 먼 곳까지 가는 藥을 달이는데 쓰고 대소변을 通利시키는데 쓰는 것이다.(千里水 性平味甘無毒. 主病後虛弱 揚之萬過 煮藥禁神 皆驗. 長流水 卽千里水也 二水 皆堪蕩滌邪穢 煎煮湯藥 禁呪鬼神(『本草』). 千里水 從西來者 謂之東流水 取其性快順疾速 通關下膈也(『食物』). 長流水者 但取其流長而來遠耳 不可泥於千里也 以其性遠而通達 歷科坎已多 故 取以煎煮手足四末之病 道路遠之藥 及通利大小便之用也(『正傳』).)”²⁹⁾ 멀리서 흘러 온 물을 기도할 때 사용한다는

版社. 2008. p.295.

27)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5.

28)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5.

29)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1.

것은 이 물은 평범한 물과는 달리 흘러오는 동안 영적인 기운을 취하여 새롭게 변모되었다는 것이다. 또 약을 달일 때도 멀리서 흘러온 물을 쓰는 이유는 이 물은 滑利하고 通達시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대소변을 通利하고 中心에서 먼 手足과 四肢末端까지 끌고 가는 성질을 활용한 것이다.

泉不流者，食之有害。「博物志」曰 山居之民，多癭腫疾。由于飲泉之不流者。³⁰⁾

샘이 흐르지 않는 것은 먹으면 해가 있다. 『박물지』에 이르기를 “산에 사는 사람들이 癭腫疾이 많은데 흐르지 않는 샘물을 마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샘이 흐르지 않으면 고이고, 氣가 멎치게 되어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몸의 氣 또한 멎치게 하여 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東醫寶鑑』에 흐르지 않는 물로 潦水를 들고 있다. “潦水는 仲景의 의방에 傷寒으로 發黃하는데는 麻黃連翹湯을 요수로 달여서 복용한다고 하였는데, 그 맛이 薄하여 濕함을 돕지 않는 때문이라 했다. 다른 말로 무근수라 하는데, 산곡 중에 인적이 없는 곳에 새 흙이 움푹 파여 오목한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이다. 그 동요하지 않는 성질을 취하여 土氣가 안에 있기 때문에 脾臟을 조화시켜 음식을 먹게 하고 中氣를 보익시키는 약제를 달이는데 사용한다.(潦水 仲景方 治傷寒發黃 麻黃連翹湯 以潦水煎服 取其味薄而不助濕也(『入門』). 又名無根水 山谷中無人迹處 新土科凹中之水也. 取其性不動搖而有土氣內存 故 可以煎熬調脾進食 補益中氣之劑也(『正傳』).)”³¹⁾ 흐르지 않아 동요하지 않고, 도리어 동요하지 않는 그 성질을 이용하여 土의 기운을 가진 脾臟을 보하는 약으로 사용하고 있다. 역시 물의 氣味보다는 물의 기운과 성질을 이용하여 질병 치료에 이용하는 것이다.

泉湧出曰瀆。在在所稱珍珠泉者，皆氣盛而脉湧耳，切不可食。取以釀酒，或有力。³²⁾

샘이 샘솟듯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瀆이라 한다. 여러 곳에서 珍珠泉(방울방울 기운이 솟구쳐 오르는 샘)이라 말하는 것은 모두 氣가 성하고 脉이 웅솟음치는 것일 따름이니,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물을 취해서 술을 빚으면 혹 더러는 효력을 보는 경우가 있다.

샘이 솟구쳐 솟아오르는 것은 물의 기운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고 사람이 먹으면 厚德한 기운이 없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다만 술을 빚으면 가끔 효력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솟구치는 기운을 이용하여 약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東醫寶鑑』의 甘爛水는 많이 휘저어 방울이 생기게 한 물을 말한다. “감란수를 만드는 법은 물 한 되 정도를 큰동이 안에 넣고 국자로 수백 번을 휘저어 구슬방울 5~6000개를 만들어 취하여 쓴다. 일명 百勞水라 한다. 이 물과 月窟水는 같으니 그 맛이 달고 따뜻하고 성질이 부드러우므로 傷寒陰症 등의 약을 달이면 좋다.(甘爛水 作甘爛水法. 取水升許 置大盆中 以杓揚之數百遍 水上 作珠子五六千顆 撇取用之 一名百勞水(『本草』). 此水 與月窟水同 取其味甘溫而性柔 故可以烹傷寒陰證等藥也(『正傳』).)”³³⁾ 진주천처럼 방울방울 솟구쳐 오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이 기운을 통해 약을 달이는데 쓰고 있다. 이는 물을 휘저어 甘湯하게 만들고 성질을 부드럽게 陽性으로 변화시켜 상한의 음증을 치료하는데 쓴 것이다.

솟구쳐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기가 역류하는 성질을 취한 것으로 『東醫寶鑑』에 逆流水가 있다. “逆流水는 곧 거꾸로 흐르는 물이다. 곧 천천히 흘러서 어지럽게 도는 물이다. 그 성질이 거슬러서 거꾸로 흐르므로 취해서 담음을 토하게 하는 약제를 타서

30) 高謙 趙立助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5.

31)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2.

32) 高謙 趙立助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6.

33)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1.

쓴다.(逆流水者 卽倒流水也。乃慢流廻瀾之水也 以其性 逆而倒流 故 取以調和發吐痰飲之劑也(『正傳』).)”³⁴⁾ 역류수 역시 그 기운이 역류하는 성질을 취해 담음을 토하게 하는 것이다.

泉懸出曰沃，暴溜曰瀑，皆不可食。而廬山水簾，洪州天台瀑布，皆入水品，與『陸經』背矣。故張曲江『廬山瀑布』詩 吾聞山下蒙，今乃林巒表。物性有詭激，坤元曷紛矯 默然置此去，變化誰能了 則識者固不食也。然瀑布實山居之珠箔錦幕也，以供耳目，誰曰不宜。³⁵⁾

샘이 매달려서 나오는 것을沃이라고 하고, 사납게 흘러내리는 물을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먹을 수 없다.廬山의 水簾, 洪州(강소성 남창시)의 天台瀑布를 물 중 좋은 등급에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陸羽의 『茶經』과는 배치가 된다. 고로 張曲江 『廬山瀑布』라는 詩에서, “내가 산 아래에서 흐르는 물이 蒙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숲과 산봉우리만 펼쳐졌구나. 물의 성격은 약간 파격적이고 몇몇한 법도를 벗어났으니, 坤元(땅이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이 어찌 어지럽지 아니리오, 묵묵히 이걸 두고 떠나니, 변화를 누가 능히 알고” 라고 하였으니,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산에 있는 폭포는 산에 있는 진주요 은박이요 비단 장막으로서 사람들에게 불만한 장관을 제공하니, 누가 마땅하지 않다고 이르리오?

샘이 솟구쳐 나오는 瀆, 매달려서 떨어져 나오는 沃, 위에서 사납게 흘러내리는 瀑布와 같은 종류의 물은 나오는 기운이 강하고 기운이 사나워서 먹을 수 없다고 하였다. 물이 맑고 차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통하여 어떤 氣를 가지게 되었는지가 물의 성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먹어야 한다. 저자는 먹는데 적당하지 않아서 말

없이 돌아서서 이를 取하지 않고 떠나지만, 사람들에게 불만한 장관을 제공해 주니 아주 쓸모없다고 까지는 하지 않았다.

2) 清寒

清, 朗也, 靜也, 激水之貌。寒, 冽也, 凍也, 覆水之貌。泉不難于清, 而難于寒。其瀨峻流駛而清, 崖奧陰積而寒者, 亦非佳品。³⁶⁾

맑은 것은 밝고, 고요한 것이니, 물이 맑은 모습이다. 차다는 것은 물이 찬 것이며, 얼은 것이니, 얼음이 물을 덮고 있는 모습이다. 泉은 맑기는 어렵지 않은데, 차기가 어렵다. 그 여울이 경사가 급해서 빨리 흐르면서 맑은 것과, 바위가 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쌓여 차가운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泉이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으면 맑아질 수는 있으나, 차가워지는 것은 움직임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니 다른 기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맑기는 어렵지 않으나 맑으면서 차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경사가 급해서 물이 빠르게 흐르면 기운이 빠르고 사나워지게 됨으로 좋지 않은 것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여 차가운 것은 음의 기운이 뭉친 것이어서 먹어서 좋은 품질이 아니라고 하였다. 찬물이라도 그 찬 기운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에 따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石少土多, 沙膩泥凝者, 必不清寒。³⁷⁾

돌이 적고 흙이 많고, 모래가 끈적거리고 진흙이 엉킨 것은, 반드시 맑고 차지 않다.

산의 뼈이며 산의 정기로 물에게도 그러한 정기

34)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2.

35)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6.

36)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6.

37)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6.

를 제공해주는 돌이 적어서 흙이 많거나, 모래가 차지고 진흙이 엉긴 곳을 흐르는 물은 그 기운 또한 탁한 기운이 엉키게 되어 반드시 맑고 차게 되지는 않아서 좋은 물이 아니라 하였다. 한의학에서는 흙 중에서 황토로 만든 물을 좋은 물로 보고 있다. 즉, 재료로 쓰인 황토가 가진 성질이 土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이것으로 만든 地漿의 경우 土의 성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어, 역시 土의 성질을 가진 脾를 補하는데 좋은 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地漿水是 성질이 차고 독이 없으며, 中毒과 번민증을 풀어준다. 또한 산중의 독이 있는 버섯을 사람이 달여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또 단풍나무 버섯을 먹으면 사람이 웃음을 그치지 못하고 또한 죽는데 오직 地漿水를 마셔야 모두 낫는다. 그 밖의 약으로는 구하지 못한다. 황토를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그 속에 물을 대고 휘저어 혼탁하게 한 후 잠시 후 맑은 물을 마신다.(地漿 性寒無毒. 解中毒 煩悶 又解諸毒 山中有毒菌 人煮食 必死. 又楓樹菌 食之 令人笑不止 亦死 惟飲地漿 皆差 餘藥 不能救矣(『本草』). 掘黃土地 作坎 以水沃其中 攪令濁 俄頃 取清飲之(『本草』).)”³⁸⁾고 하였다.

이 역시 黃土가 지니고 있는 氣가 물에 녹아들어 藥性을 가지게 되므로 그것으로 毒을 解毒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

蒙之象曰泉行, 井之象曰寒泉. 不果則氣滯而光不澄, 寒則性燥而味必齷.³⁹⁾

주역 蒙卦의 대상전에서 “행동을 과감하게 한다”라 말하고, 井卦의 소상전에서 “寒泉”이라 말했다. 과감하지 않으면 기가 막혀서 빛이 맑지 않고, 물이 차지 않으면 성질이 조급하여 맛이 반드시 떫게 된다.

주역의 蒙卦와 井卦를 인용하여 물의 기가 과감하지 않으면 막혀서 빛이 맑지 않듯이, 물이 과감히

흐르지 않으면 곧 기가 막혀서 맑지 않고, 물이 차갑지 않으면 성질이 급하여 그 맛이 떫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은 과감히 흘러야 하고, 그래야 차갑고 맑아 그 맛이 좋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성질이 조급하여 맛이 떫게 되는 것과는 다르게 『東醫寶鑑』에는 맛이 떫으면서도 차가운 물에 대한 설명이 있다. “냉천은 세속에서 椒水라고 한다. 偏頭痛을 主治한다. 등이 시리고, 火鬱, 惡寒 등 증세는 冷泉으로 목욕하면 곧 낫는다. 冷泉 밑에는 白礬이 있으므로 물맛이 시고 떫고 차갑다. 7-8월경에 목욕한다. 밤에는 목욕하면 절대 안 되니 밤에 목욕하면 반드시 죽는다.(冷泉 俗謂之椒水. 主偏頭痛背寒火鬱惡寒等證 浴之皆差. 下有白礬 故 水味酸澁冷冽 於七八月時 浴之 切不可夜浴 夜浴必死(『俗方』).)”⁴⁰⁾ 하였는데, 차고 떫은맛은 냉천 밑에 있는 백반이 그 원인이다. 백반은 外用하면 解毒殺蟲하고 燥濕止揚하는 효능⁴¹⁾이 있는데, 이는 백반의 味가 酸澁하고 氣가 수렴함으로 이를 이용하여 질병치료에 활용한 것이다.

冰, 堅水也, 窮谷陰氣所聚, 不洩則結而為伏陰也. 在地英明者惟水, 而冰則精而且冷, 是固清寒之極也. 謝康樂詩 鑿冰煮朝飧. 『拾遺記』蓬萊山冰水, 飲者千歲.⁴²⁾

얼음은 단단한 물이다. 궁벽한 계곡에 음기가 모여서 그것이 새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얼어서 음기가 되는 것이다. 땅에서 영명한 것은 오직 水인데, 얼음은 精하면서 또 冷하니, 이것은 진실로 맑고 차가운 것이다. 謝康樂의 詩에서는 “얼음을 깨서 아침, 저녁밥을 짓는다.”라고 하였고, 『拾遺記』에 이르기를, “蓬萊山の 얼음 물을 마신 자는 천년을 산다.”고 하였다.

38)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2.

39)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6.

40)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2.

41)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共同教材 編纂委員會 編者.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1. p.695.

42)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6.

얼음은 단단하게 굳은 것으로서 물의 음기가 모여 응결되면 얼음이 되는 것이다. 얼음은 맑으면서도 차가우니 그것은 지극히 맑고 차가운 것이라 하였다. 옛사람들은 얼음을 깨서 밥을 짓고 얼음물을 마신 자는 천년을 산다고 하였으니, 이와 유사한 예로 『東醫寶鑑』에 冬霜이 있다. “冬霜은 성질이 차갑고 독이 없다. 뭉쳐서 먹으면 술로 열이 나는 증세와 술 마신 후에 모든 열로 얼굴이 붉어지고 상한으로 코가 막히는 증세를 푸는 주치약이 된다. 여름철에 땀띠가 짓무른 데는 조개가루에 섞어서 붙이면 곧 낫는다. 해가 뜨기 전에 닭 날개로 쓸어서 거두어 취하여 사기병에 거두어 두면 오래도록 썩지 않는다.(冬霜 性寒無毒. 團食之 主解酒熱 酒後諸熱面赤及傷寒鼻塞(『本草』). 暑月癩瘡赤爛 和蚌粉付之 立差. 日未出時 以雞羽掃取 收磁瓶中 時久不壞(『本草』).)”⁴³⁾

한편으로는 얼음을 깨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설명한 것도 있는데, 『東醫寶鑑』의 夏氷이 그것이다. “夏氷은 성질이 크게 차갑고 맛이 달고 독이 없다. 煩熱을 제거한다. 『食譜』에 이르기를 ‘무릇 여름에 쓰는 얼음은 단지 음식에 조용히 스며들어 음식의 氣를 차갑게 하는 것이지 부수어 먹어서는 안 된다. 당시에는 잠시 동안 기분이 유쾌하나 오래되면 모두 질병이 된다.(夏氷 性大寒味甘無毒 去煩熱. 『食譜』云 凡夏用水 只可隱啖飲食 令氣冷 不可打碎食之. 當時暫快 久皆成疾(『本草』).)”⁴⁴⁾ 음기가 뭉쳐진 얼음은 차고 맑아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나 사람이 먹었을 때는 음기가 몸으로 들어와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오래되면 질병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차가운 것이라고 모두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 따라, 채취하는 시간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下有石硫黃者，發為溫泉，在在有之。又有共出

一壑，半溫半冷者，亦在在有之，皆非食品。特新安黃山朱砂湯泉可食。『圖經』云 黃山舊名黟山，東峰下有朱砂湯泉，可點茗。春色微紅，此則自然之丹液也。『拾遺記』蓬萊山沸水，飲者千歲。此又仙飲。⁴⁵⁾

아래에 石硫黃 있는 장소에서는 온천이 나오는데 곳곳에 있다. 또 한 골짜기에서 같이 나오면서, 반은 따뜻하고 반은 차가운데 또한 곳곳에 있다. 모두 먹는 것은 아니다. 다만 新安의 黃山에 있는 朱砂湯泉의 온천물은 먹을 수 있다. 『圖經』에 이르기를 “黃山の 옛날 명칭은 黟山이라고 하는데, 동쪽 봉우리 아래 朱砂가 섞인 온천수가 나오는데, 차를 우려낼 수 있다. 봄에는 약간 붉은 색을 띠는데 이는 곧 자연의 丹液이다.” 라 했고, 『습유기』에서는 “蓬萊山の 물을 끓여, 마신 자는 천살을 산다.” 고 하였으니, 또한 신선의 음료라 할 것이다.

물의 아래쪽에 석유황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물의 성질을 변화시킨 것인데, 『東醫寶鑑』의 玉井水도 이러한 예이다. “玉井水는 샘으로 나오는 물을 말하는데,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고 독이 없다. 오래 복용하면 사람의 몸이 윤기가 나고 모발이 희어지지 않으니 옥이 있는 곳의 산곡 속에서 나온다. 산에 옥이 있으면 초목이 윤기가 난다. 초목에 윤기가 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윤기가 안 나겠는가? 오늘날 산 가까이에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은 어찌 玉石의 진액을 먹기 때문이 아니겠는가?(玉井水 性平味甘 無毒. 久服 令人體潤 毛髮不白. 出諸有玉處山谷中 山有玉則草木潤 猶潤於草木 何況於人乎. 今人 近山多壽者 豈非玉石之津乎(『本草』).)”⁴⁶⁾고 하면서, 옥의 기운이 물에 영향을 미쳐 사람에게도 좋은 물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온천이 있어서 찬물과 더운물이 함께 섞여 나오는 물에 대해 평하면서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新安의

43)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0.

44)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0.

45) 高謙, 趙立助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6.

46)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1.

黃山에서는 朱砂湯泉이 그것이다. 朱砂가 석인 溫泉水로서 자연의 丹液으로 설명하고 있다. 『東醫寶鑑』에는 찬물과 더운물을 섞어서 生熟湯이라 하여 사용한다. “生熟湯은 맛은 짜고 독은 없다. 볶은 소금을 안에 투여하여 1,2되를 마시면 숙식과 악독한 식물을 토해내고 객란도 다 토해내고 곧 낫는다. 사람이 크게 취하고 과일을 과도히 먹었을 때 生熟湯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湯이 모두 술과 과일 맛으로 변한다. 끓는 물 반사발, 새로 길은 물 반사발을 합해 섞으면 음양탕이 되니 곧 生熟湯이다.(生熟湯 味鹹無毒. 以炒塩投中 飲之 一二升 吐出宿食惡毒之物 欲爲霍亂 吐盡便愈(『本草』). 人大醉 及食瓜果過度 以生熟湯 浸身 湯 皆爲酒及瓜味(『本草』). 百沸湯半碗 新汲水半碗合和 名曰陰陽湯 卽生熟湯也(『醫鑿』).)”⁴⁷⁾ 이는 찬물과 더운물이 섞인 것이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볶은 소금을 넣어서 복용하면 먹은 것을 토하게 하고, 몸을 담그면 몸의 나쁜 기운이 生熟湯으로 빠져 나와 몸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는 음양의 성질을 가진 물의 작용을 이용하여 인체의 음양을 조화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東醫寶鑑』에 溫泉과 硫黃泉에 대한 설명도 있다. “溫泉은 여러 風과 筋骨이 구부러지고 오그라드는 증세 및 피부가 완고하게 마비되고 수족이 움직일 수 없는 것과 大風과 음 증세에 목욕하고 목욕이 마르면 응당 허하고 노곤하니 약과 음식으로 補陽한다. 성질은 열성이고 독이 있으니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온천 아래에 硫黃이 있으면 물이 끓여져서 나오니 硫黃이 모든 창병의 주치약이 되고 물도 또한 그렇다. 물에 유향 냄새가 나면 더욱 風冷을 다스리는데 좋다.(溫泉 主諸風筋骨攣縮 及皮膚頑痺 手足不遂 大風疥癬者入浴 浴乾 當虛態 可與藥食補養(『本草』). 溫泉 性熱有毒 切不可飲.....下有硫黃 卽今水熱 硫黃 主諸瘡病 水亦宜然 水有硫黃臭 故 愈風冷爲上(『本草』).)”⁴⁸⁾라고 하여, 온천의 경우 독이 있으니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 하였고 이곳에서 목욕하

여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 온천 밑에 유향이 있는 경우 유향의 기운이 물로 전해져서 유향이 가진 치유효과가 물에서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有黃金處, 水必清 有明珠處, 水必媚 有子鮪處, 水必腥腐 有蛟龍處, 水必洞黑, 嫩惡不可不辨也。⁴⁹⁾

황금이 있는 곳에는 물이 반드시 맑고, 明珠가 있는 곳에는 물이 반드시 아름답다. 장구벌레와 붕어가 있는 곳은 물이 반드시 비리고 썩은 냄새가 있고, 蛟龍이 있는 곳은 물이 반드시 흑색을 띠게 된다. 좋고 나쁜 것을 반드시 구별해야만 한다.

황금이 있는 곳의 물은 반드시 맑다는 것은 황금의 기운이 물의 기운을 맑게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명주는 고운 빛이 나는 아름다운 구슬로 蚌蛤 속에서 생긴 眞珠를 말하는데 이것 또한 물을 아름답게 한다. 그러나 벌레와 붕어 등 물고기가 있는 곳은 비린내와 썩은 내를 유발하고 傳說 上の 용의 한 가지인 교룡이 있으면 반드시 흑색을 띤다고 하였다. 그러니 물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그 물의 내용과 기를 살피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東醫寶鑑』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치료약으로 삼은 것이 있다. 물에 인위적으로 고치를 넣거나 생삼을 넣어서 물의 성질을 바꾸어 약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비탕은 “구마즙이라고도 한다. 소갈을 치료하는 주치약이 되니 그 氣가 薄한 성질을 취해서 虛熱을 내보내게 한다. 곧 푸른 삼을 달인 즙이라고 하였다.(麻沸湯 嘔麻汁 主消渴 取其氣薄而泄虛熱也(『入門』). 卽青麻煮汁也(『入門』).)”⁵⁰⁾고 하였다. 조사탕도 같은 원리인데, “조사탕은 독이 없고 회충을 주치한다. 이는 달인 고치의 즙인데 살충하기 때문이다. 또 소갈로 입이 마른 것을 주치하는데 이것은 화에 속하면서 음이 있는

47)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2.

48)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2.

49) 高謙, 趙立助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7.

50)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3.

것이다. 사용하면 방광 중의 상화를 사하시킬 수 있고 청기를 이끌어서 입으로 올라가게 한다. 달인 탕을 마시거나 혹은 고치껍질의 실을 달인 탕을 마시면 또한 효험이 있다(線絲湯 無毒 主虻虫 此 煮繭汁 爲其殺蟲故(『本草』). 又主消渴口乾 此物 屬火 有陰之用 能瀉膀胱中相火 引清氣 上潮于口 煮湯飲之 或繭殼絲綿湯 飲之 亦效(『丹心』).)⁵¹⁾고 하였다. 두 가지 모두 물에 다른 성질의 물질을 넣어 물의 성질을 바꿈으로써 약성을 가지게 하여 치료약으로 사용하고 있다.

3) 甘香

甘, 美也 香, 芳也. 『尚書』稼穡作甘. 黍甘爲香, 黍惟甘香, 故能養人, 泉惟甘香, 故亦能養人. 然甘易而香難, 未有香而不甘者也. ⁵²⁾

감은 맛있는 것이고, 쉼은 향기가 나는 것이다. 『尚書』에서는 “농작물은 단맛을 낸다.” 라고 하였다. 기장은 달면서 향이 나는데, 기장은 감처럼 향하기 때문에 사람을 기르고, 쉼도 감처럼 향하기 때문에 또한 사람을 기른다. 그러나 단맛은 쉽게 내게 할 수 있지만 향은 어려우니, 향기가 나면서 달지 않은 물은 없기 때문이다.

물의 맛이 단맛이 나면서 향이 나는 것을 좋은 물로 평하고 있다. 곡식이 가진 맛이 甘味니, 물에서 甘味가 나오면 그 또한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 평하고 있다. 물맛이 좋은 것이나 그 냄새가 향기로운 것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주변에 나쁜 환경이 있으면 그 물에 영향을 미치고, 심하면 독액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물이 나오는 주변도 살펴야 한다.

味美者曰甘泉, 氣芳者曰香泉, 所在間有之. 泉上有惡木, 則葉滋根潤, 皆能損其甘香, 甚者能

釀毒液, 尤宜去之. ⁵³⁾

물맛이 좋은 것을 甘泉이라 부르고, 그 냄새가 향기로운 것을 香泉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곳에 간간히 존재한다. 샘물가에는 나무가 있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것은 그 나뭇잎이 무성하고 뿌리가 윤택한 것은 모두 그 달콤하고 향이 나는 것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능히 독액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욱 마땅히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샘물가에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필히 물의 기운을 빨아 들여 자라니 좋은 물이 있을 수가 없고 만약 악목인 경우 심하면 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東醫寶鑑』에서는 菊花水를 설명하고 있다. “菊花水는 국화 포기 밑에서 나는 물로, 일명 菊英水라 한다.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고 독이 없다. 風痺와 현기증이 나는 것을 치료하고 風을 없애고 쇠약함을 補하고 사람의 顏色을 좋게 하고 오래 복용하면 오래 살고 늙지 않는다. 南陽 酈縣의 北潭水는 그 근원이 다 향기 좋은 菊花가 자라서 언덕을 덮어서 물이 菊花 맛이다. 그러므로 거주민이 이 물을 마시고 오래 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촉나라에 長壽源이 있었는데 그 근원에는 국화가 많아서 물이 흐르는 4계절은 모두 국화향기였다.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수명이 모두 2, 300세이다. 그러므로 陶靖節 같은 流는 국화를 심어서 물에 담가 차를 달여 마시고 오랫동안 살았다.(菊花水 一名菊英水 性溫 味甘 無毒. 療風痺及眩冒 除風補衰 令人好顏色 久服延年不老(『本草』). 南陽酈縣北潭水 其源 悉芳菊生被崖 水爲菊味 故 居民飲此水者 無不壽考(『本草』). 蜀中 有長壽源 其源 多菊花而流水 四季 皆菊花香 居人飲其水者 壽皆二三百歲 故 陶靖節之流 好植菊花 浸水烹茶 期延壽也(『正傳』).)”⁵⁴⁾ 국화의 기운이 물에 전달되어 그 물을 오래 마신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으로

51)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3.

52)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7.

53)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7.

54)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0.

보았다. 그러한 샘이 없다면 도연명처럼 국화를 차로 달여 오래 마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甜水, 以甘稱也。『拾遺記』員嶠山北, 甜水遶之, 味甜如蜜。『十洲記』元洲玄澗, 水如蜜漿, 飲之與天地相畢。又曰 生洲之水, 味如飴酪。⁵⁵⁾

甜水是 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拾遺記』에서는 “員嶠山 북쪽에 단물이 둘러 흐르고 있는데, 맛이 달기가 꿀과 같다.” 라고 하였다. 『十洲記』元洲에 있는 신묘한 골짜기에서는 꿀물 같은 물이 있는데 그것을 마시는 것은 하늘과 땅이 서로 완성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生洲의 물은 맛이 엿과 치즈와 같다” 고 하였다.

水中有丹者, 不惟其味異常, 而能延年卻疾, 須名山大川, 諸仙翁修煉之所有之。葛玄少時為臨沅令, 此縣廖氏家世壽, 疑其井水殊赤, 乃試掘井左右, 得古人埋丹砂數十斛。西湖葛井, 乃稚川煉丹所在。馬家園後淘井, 出石甕, 中有丹數枚如芡實, 啖之無味, 棄之。有施漁翁者, 拾一粒食之, 壽一百六歲。此丹水, 尤不易得。凡不淨之器, 切不可汲。⁵⁶⁾

물중에 丹沙가 있으면, 그 맛이 일반적인 것과 다를 뿐 아니라, 능히 수명을 늘려주고 질병을 물리쳐 주는데, 모름지기 名山大川 모든 신선들이 수련을 하는 곳에 있다. 葛玄이 예전에 臨沅의 수령으로 있을 때, 이 고을의 廖氏 가문이 대대로 오래 살았다. 그 집안에 있는 우물의 색이 유달리 붉은 것을 의심하여, 이에 우물의 좌우를 파서 살펴보았더니, 옛사람들이 묻어 놓은 수백 말의 단사를 얻을 수 있었다. 서호의 갈홍이 먹던 우물은 葛稚川(갈홍의 자, 호는 포박자)이 연단하던 장소였다. 馬家園 뒤의 도정에서 돌독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 芡實과 같은 단사가 여러

개가 있었다. 먹어 봐도 맛도 없어서 버렸다. 시씨 성을 가진 고기 잡는 늙은이가 한 알을 주어서 먹었는데 160년을 살았다. 이 단수는 더욱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무릇 깨끗하지 아니한 그릇으로는 절대로 그 물을 길어서는 안 된다.

우물의 밑에 丹沙가 들어 있어서 그 물의 기운이 바뀔으로써 그러한 물을 먹은 집안사람이 대대로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는 주사천의 효험에 대한 이야기이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으로 그 물을 절대 길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또한 물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에 대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깨끗한 그릇으로 정갈하게 길어 먹는 물이야말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煮茶得宜, 而飲非其人, 猶汲乳泉以灌蒿萊, 罪莫大焉。飲之者一吸而盡, 不暇辨味, 俗莫甚焉。⁵⁷⁾

차를 다리기는 마땅함을 얻었으되, 그 마실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마신다면, 그것은 乳泉의 물을 길어다가 그 蒿萊(묵은 썩발)에다가 주는 것과 같으니 죄가 이보다 더 클 수가 없다. 차를 마시는 자가 한 번에 다 마셔버리고, 그 맛을 구별할 겨를이 없었다면, 속된 것이 이것보다 심한 것이 없는 것이다.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는 田藝蘅의 『煮泉小品』의 宜茶 부분⁵⁸⁾에 수록되어 있는 문구인데, 高濂은 이것을 甘香의 끝부분에 실어 놓았다. 좋은 물을 구해 차를 다렸으되 그것을 마실만한 격이 있는 사람이 마시고 또 그것을 마시되 그 맛을 음미하지 않고 마신다면 천박하여 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55)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7.

56)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7.

57)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7.

58) 金明培. 中國의 茶道. 서울. 明文堂. 2007. p.315.

4) 靈水

靈，神也。天一生水而精明不淆，故上天自降之澤，實靈水也。古稱上池之水者非欺，要之皆仙飲也。大甕收藏黃梅雨水、雪水，下放鵝子石十數塊，經年不壞。用栗炭三四寸許燒紅，投滓水中，不生跳蟲。靈者，陽氣勝而所散也。色濃為甘露，凝如脂，美如飴，一名膏露，一名天酒是也。⁵⁹⁾

靈은 신령스러운 것이다. 하늘에서 처음 물이 생겨나서 精明하여 어지럽지 않다. 따라서 위에 있는 하늘이 스스로 은혜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영험한 물이다. 옛날에 상지지를 언급한 것은 잘못된 것인가? 요컨대 모두 신선들이 마시는 것이다. 큰 독에 황매우수와 눈 녹은 물을 담아 놓고서, 아자석(동글동글한 자갈들, 거위알과 같은 돌) 10여개를 집어넣으면 여러 해가 되어도 썩지가 않는다. 밤나무 숲 3~4촌 짝 되는 것을 빨강게 달궈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신령스러운 것은 양기가 승하여 흩어버리기 때문이다. 색이 진해지면서 감로가 되는데, 기름처럼 영기고, 맛이 엷과 같다. 일명 '고로' 라고 하고, 일명 天酒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靈은 신령스럽다는 뜻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스러운 물을 靈水라 한다. 天一生水는 주역에 나오는 용어로 天一이 물을 생하여 정명하여 섞이지 않고 순수하니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과 만물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으로 눈, 비, 이슬 등이 이것이 된다. 上池之水是 『史記』의 「편작전」에서 장상군이 편작에게 환약을 주면서 먹으라고 했던 물로써 신선들이 마시고 영생을 얻는 물이라고 하였다⁶⁰⁾.

상지지와 관련하여 『東醫寶鑑』에 半天河水에 대한 설명이 있다. “반천하수는 성질이 평하다.(한곳에서는 약간 차갑다하였고 한곳에서는 차갑다고 했

다.) 맛은 달고 독이 없다.心病을 치료하고 鬼疰와 狂邪의 기와 악독을 다스린다. 능히 鬼精을 죽여 정신이 황홀하고 망령된 말을 하는 것을 치료한다. 이것은 대나무의 끝, 높은 나무의 구멍 속에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인데, 다 마실 수 있다. 아울러 여러 부스럼을 씻으면 좋다. 장상군이 편작에게 上池之수로 마시라고 하니 곧 대울타리 머리의 대롱 안의 고인 물인데 그 청결함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류의 오탁한 기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환단을 단련하고 선약을 조제하는데 쓰는 것이다.(半天河水 性平 (一云微寒 一云寒) 味甘 無毒. 治心病鬼疰狂邪氣惡毒 能殺鬼精恍惚妄語. 此 竹籬頭 及高樹穴中 盛天雨水也 皆可飲 并洗 諸瘡(『本草』). 長桑君授扁鵲 飲以上池之水 乃竹籬藩頭管內之積水耳 取其清潔 自天而降 未受下流汚濁之氣 故 可以煉還丹調仙藥之用也(『正傳』).”⁶¹⁾ 이는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무 특히 대나무에 붙은 빗물이나 이슬을 靈水라고 여긴 것이다.

대나무는 아니지만 조개에 받은 이슬도 효력이 있다. 『東醫寶鑑』의 方諸水가 그것이다. “方諸水是 성질이 차고 맛이 달고 독이 없다. 눈을 밝히고 마음을 안정시킨다. 소아의 번열과 갈증을 없앤다. 方諸는 큰 조개이다. 밝은 달 아래서 조개에서 받은 2-3합의 물을 말하는데 이 물 역시 아침에 내린 이슬과 같다.(方諸水 性寒味甘無毒. 主明目定心 去小兒熱煩渴. 方諸 大蚌也. 向月承取 得二三合水 亦如朝露也(『本草』).”⁶²⁾라고 하면서 조개에 받은 물로써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같은 이슬이지만 받는 때와 받는 용기에 따라 다른 효과가 있다. 또 다른 이슬로 『東醫寶鑑』에서 秋露水和 蘩露水가 있다. “秋露水是 가을 이슬 물로써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독이 없다. 消渴을 그치게 하고 사람의 몸을 가볍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하고 肌肉을 윤택하게 한다. 아침 이슬은 해 뜨기 전에 거두어서 쓴다. 백초머리의 이슬은 백가지 병을 낫게 한다. 栢葉 위의 이슬은 눈을 밝히는 것을 주관한다. 백가

59) 高濂 趙立助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p.297-298.

60) 金경수 外 26명 編著. 醫學漢文.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17.

61)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1.

62)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p.1370-1371.

지 꽃 위의 이슬은 사람의 안색을 좋게 한다. 藜露水란 이 가을 이슬이 한참 왕성하게 내릴 때의 이슬이니 쟁반에 받아서 마시면 오래 살 수 있고 배고프지 않다. 秋露水는 거두어들이고 肅殺하는 氣를 타고 난다. 그러므로 殺祟하는 약을 달일 수 있고, 또 癩虫과 疥癬의 여러 충을 죽이는데 조제하여 붙이는 약제를 만들 수 있다.(秋露水 性平味甘無毒. 止消渴令人身輕不飢 肌肉悅澤 朝露未晞時 拂取用之. 在百草頭露 愈百疾. 栢葉上露 主明目. 百花上露 令人好顏色(『本草』). 繁露水者 是秋露繁濃時露也 作盤以收之 食之 延年不飢(『本草』). 秋露水者 稟收斂肅殺之氣故 可以烹殺崇之藥 及調付殺癩虫疥癬諸虫之劑也(『正傳』).)⁶³⁾ 모두 이슬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말하는데, 채취하는 시기가 다른 뿐 모두 약이 되는 것들이다.

큰 독에 황매우수를 담아서 아자석을 넣어두면 여러 해 되도록 썩지 않는다는 구절은 『煮泉小品』에는 없는 구절이다. 高濂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썼는지, 다른 책에서 발췌했는지는 알 수 없다. 여러 해가 되도록 썩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신령스럽다는 의미이다. 『考槃餘事』에서는 養水부분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흰 자갈을 물독에 넣어두면 물맛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물을 맑히고 흐리지 않게 한다.”⁶⁴⁾ 하였는데, 이는 『茶記』에 ‘養水를 함에는 자갈을 독 속에 넣어두면 물이 좋아질 뿐 아니라 흰 돌과 푸른 물과는 서로 맞아 같이 산간에 있는 듯한 유쾌한 연상을 일으킨다.’⁶⁵⁾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高濂은 이 구절을 井水의 마지막 부분에 인용하였다. 『考槃餘事』의 저자 屠隆도 高濂의 책을 보고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煮泉小品』에는 없는 구절이다.

黃梅雨수는 매실이 누렇게 익어갈 때 내리는 빗물을 말하는데, 6월쯤 내리는 빗물이다. 『東醫寶鑑』에도 梅雨수에 대한 설명이 있다. “매우수는 성질이 차갑고 맛이 달고 독이 없다. 瘡疥를 씻고 滅癩痕를

없애고 옷을 빨래하고 衣垢를 씻으면 灰汁과 같으니 이것이 5월 빗물이다.(梅雨水 性寒味甘無毒. 主洗瘡疥 滅癩痕 澣衣 去垢如灰汁 是五月雨水也(『本草』).)⁶⁶⁾고 하였다.

신령스러운 것은 양기가 많아 邪氣를 흩어버리고 이것이 진해지면 그것이 감로가 된다. 『本草綱目』에서는 감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甘露는 고로, 서로, 천주, 신장이라고도 한다. 이시진이 말하기를 瑞應圖에서 말하되 감로는 맛있는 이슬이다. 신령의 정이며 어진 정치를 한 것에 대한 상서로운 은택이다. 그 영기는 것은 기름 같고 그 달기가 옛과 같다. 그래서 감로, 고로, 천주, 신장의 명칭이 있는 것이다.(甘露『拾遺』膏露『綱目』, 瑞露『綱目』, 天酒『綱目』, 神漿. 時珍曰 按『瑞應圖』雲 甘露, 美露也. 神靈之精, 仁瑞之澤, 其凝如脂, 其甘如飴, 故有甘, 膏, 酒, 漿之名.)⁶⁷⁾ 이슬이나 눈이나 비나 모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하늘의 기운을 담고 땅으로 내려왔으나 아직 땅에 닿지 않은 것이니 모두 신령하고 그에 맞는 신령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雪者, 天地之積寒也. 『汜勝書』雪爲五穀之精. 『拾遺記』穆王東至大虛戈之谷, 西王母來進山兼州甜雪, 是靈雪也. 陶穀 取雪水, 烹團茶. 而丁謂『煎茶』詩 痛惜藏書篋, 堅留待雪天. 李虛己『建茶呈學士』詩 試將梁苑雪, 煎勸建溪春. 是雪尤宜茶飲也. 處士列諸末品, 何邪 意者以其味之燥乎 若言太冷, 則不然矣.⁶⁸⁾

눈은 하늘과 땅에 쌓여있는 차가운 것이다. 『범승서』에 눈은 오곡의 정이 된다고 하였다. 『습유기』에서 이르기를, 주나라 5번째 임금 목왕이 동쪽으로 대허지곡에까지 이르니 서왕모가 나와서 검주의 단맛이 나는 눈을 올렸다고 하니 이것은 다 신령스러운 눈인 것이다. 陶穀이 눈 녹은 물을 취하여, 단차를 끓였고, 丁謂의 『煎茶』詩에 이

63)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0.

64) 屠隆. 權德周. 考槃餘事. 서울. 乙酉文化社. 1972. p.163.

65) 屠隆. 權德周. 考槃餘事. 서울. 乙酉文化社. 1972. p.163.

66)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1.

67) 李時珍. 陳貴廷主編. 本草綱目通釋. 北京. 學苑出版社. 1992. p.224.

68)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8.

르기를 “내가 책을 저장하는 상자를 몹시도 아껴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 머무르며 눈 내리는 날을 기다린다.” 고 하였고, 李虛己의 『建茶呈學士』라는 詩에서는 “양원의 눈을 다려, 建溪의 봄을 움직인다.” 고 했으니 눈이라는 것이 더욱 차로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처사들이 말품에다가 배열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생각하건대, 그 맛이 건조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만약 너무 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

여러 글을 인용하여 눈의 신령스러움을 설명하고 있다. 장서 상자에 눈이 내리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마도 눈에 살균작용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곰팡이와 벌레를 없애고, 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눈 내리는 날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눈과 관련하여 『東醫寶鑑』에 臘雪水에 대한 설명이 있다. “납설수는 성질은 차갑고 맛은 달고 독이 없다. 유행하는 時氣의 溫疫을 치료하고 술 마신 후의 갑작스런 열과 황달을 치료한다. 일체의 독을 풀고 눈을 씻으면 열이 나 붉은 것을 없앤다. 臘雪水는 大寒水이다. 비가 내릴 때 寒氣를 만나면 엉겨서 눈이 되고, 눈꽃의 모양이 6각형을 이루니 1·6水の 精氣이다. 일체의 과실을 담그면 좋다. 봄눈에는 虫이 있으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臘雪水 性冷味甘無毒 治天行時氣 溫疫 酒後暴熱 黃疸 解一切毒 又洗眼 去熱赤(『本草』). 臘雪水 大寒水也 雨下 遇寒氣 應而爲雪 其花六出 稟六一之正氣也(『入門』). 藏淹一切果實 良. 春雪有虫 不堪收(『本草』).)”⁶⁹⁾ 일체의 독을 풀어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자에 눈을 맞게 하여 곰팡이나 벌레를 없앤다고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눈은 아니지만 우박에 대한 설명도 『東醫寶鑑』에 있다. “雹은 장의 맛이 좋지 않은데 1,2되를 취하여 독 속에 넣어두면 곧 본 맛이 난다.(雹 土醬味不正 取一二升 納瓮中 卽如本味(『食物』).)”⁷⁰⁾ 고 하였는데, 사람에게 사용하는 약

은 아니지만 인간에게 중요한 양념의 하나인 장의 맛을 되돌리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하늘의 정기를 갖고 있어, 잘못된 장의 맛을 되돌리는데 활용한 것이다.

雨者, 陰陽之和, 天地之施, 水從雲下, 輔時生養者也. 和風順雨, 明雲甘雨. 『拾遺記』香雲潤, 則成香雨, 皆靈雨也, 固可食. 若夫龍所行者, 暴而暈者, 旱而凍者, 腥而墨者, 及麓溜者, 皆不可食. 潮汐近地, 必無佳泉, 蓋斥鹵誘之也. 天下潮汐, 惟武林最盛, 故無佳泉. 西湖山中則有之.⁷¹⁾

비라는 것은 음양의 조화이고, 하늘과 땅이 베푸는 것이니, 물은 구름으로부터 내려서 때를 도와서 만물을 낳고 기르는 것이다. 바람이 온화하면 비도 순조롭게 내리고, 구름이 밝으면 빗물이 달다. 『습유기』에 이르기를 “향기 나는 구름이 두루 가득하게 축축하게 하면 곧 향기로운 비가 내린다.”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신령스러운 비인 것이니 진실로 모두 먹을 수가 있다. 만약 용이 행하여,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라든가, 오랫동안 장마가 내리는 것, 가뭄 끝에 내리는 비, 내려서 얼은 것, 비리고 검은 것과 처마의 낙수물은 모두 먹지 못한다. 조수가 활동하는 가까운 땅에는 반드시 좋은 샘이 없다. 짠 갯벌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천하의 밀물과 썰물은 오직 武林(지금의 항주)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좋은 샘이 없다. 西湖山 속에는 좋은 샘물이 있다.

비는 음양이 조화된 것으로서 바람이 온화하면 비도 순조롭게 내리고, 구름이 사납지 않고 잘 조화되면 빗물도 달다. 조화로운 상태로 내리지 않고, 갑자기 내리는 비라든지 극한 상황에서 내리는 비, 오랫동안 내리는 비, 내려서 형태가 바뀐 것, 또는 냄새가 나거나 색이 좋지 않거나, 처마의 낙수 같은 것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고 구분하고 있다. 이는 『東醫寶鑑』의 春雨水, 屋雷水, 茅屋漏水의 설

69)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0.

70)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0.

71)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8.

명파도 유사하다. 『東醫寶鑑』에서는 “春雨水는 정월 처음 온 빗물 곧 正月雨水를 말하는데, 그릇에 담아 약을 달여 먹으면 陽氣가 상승한다. 正月雨水를 부부가 각기 한 잔을 마시고 돌아와서 입방하면 당일에 자식이 있으니 신효하다.(春雨水 卽正月雨水也以器盛接 煎藥服之 令人陽氣上升(『入門』). 正月雨水夫妻各飲一盃 還房 當卽有子 神效(『本草』).)”⁷²⁾고 하였다. 정월의 첫 비로써 어떤 신령스러운 기를 함께 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가 마시면 자식이 생긴다고 보았으니 강력한 기운이 있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긴 하지만 다른 의미를 지닌 낙수물과 관련된 것으로는 『東醫寶鑑』의 屋霪水가 있다. “屋霪水는 띠새집 위에서 흘러내린 물로 미친개한테 물린 자리를 씻는 것을 주치로 하니 지붕에 물을 뿌려 받아쓰고, 또 처마 끝에서 물이 떨어지면 흠을 축축하게 하니 이 흠을 가지고 개에게 물린 상처에 붙이면 곧 낫는다. 큰독이 있어 잘못 먹으면 반드시 惡瘡가 생긴다.(屋霪水 主洗犬咬瘡 以水澆屋簷 承取用之 又以水滴簷下 令土濕 取土付犬咬瘡 卽差. 有大毒 誤食 必生惡瘡(『本草』).)”⁷³⁾고 하였다. 또 띠집(새집) 위에서 흘러내린 물인 茅屋漏水도 같은 종류로 볼 수 있는데 “茅屋漏水는 운모독을 상쇄함으로 운모를 제련할 때 쓴다.(茅屋漏水 殺雲母毒 煉雲母時 用之(『本草』).)”⁷⁴⁾고 하였다. 이는 빗물과 섞은 빗질 또는 띠풀의 효능이 혼합되어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조수가 활동하는 가까운 땅의 물은 갯벌이 짜므로 짠 성분을 많이 지니게 되어 먹기 좋은 물이 없다고 하였다. 『東醫寶鑑』의 碧海수도 이와 유사한데, “碧海수는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이 짜며 독이 약간 있다. 끓여서 목욕하면 風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제거하고 옴을 제거한다. 1홉을 마시면 宿食과 臏脹을 토해낸다. 넓은 바다 속의 짜고 색이 푸른

물을 취한다.(碧海水 性小溫味鹹有小毒. 煮浴 去風癢 疥癬 飲一合 吐下宿食臏脹. 當取大海中 味鹹色碧之水(『本草』).)”⁷⁵⁾고 하였다. 벽해수는 푸른 바닷물이다. 맛이 짍으로 구토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끓여 목욕하면 풍으로 인한 가려움증과 옴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해수욕장에서 한번 응용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揚子, 固江也, 其南冷則夾石停淵, 特入首品. 余嘗試之, 誠與山東無異. 若吳淞江, 則水之最下者也, 亦復入品, 甚不可解.⁷⁶⁾

양자는 본래 강물이 흘러가는 지역이다. 그 양자강의 南冷의 돌 사이에 고여 있는 물은 상품에 넣을 수가 있다. 내가 일찍이 맛을 한번 보니 산동의 물맛과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오송강(상해를 흐르는 황포강) 같은 것은 물 중에서는 가장 하품이다. 또한 품격 있는 물에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심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구절은 田藝衡의 『煮泉小品』 중 江水 부분에서 발췌해 온 것이다⁷⁷⁾. 같은 강을 흐르는 물이라도 그것이 어느 지역의 어떤 지형을 지나쳐 내려오는가에 따라 上品과 下品으로 나눌 수 있다. 역시 돌 사이에 고여 있는 물을 上品으로 구분하고 있다.

5) 井水

井, 清也, 泉之清潔者也 通也, 物所通用者也 法也, 節也, 法制居人, 令節飲食, 無窮竭也. 其清出于陰, 其通入于瀆, 其法節由于得已. 脈暗而味滯, 故鴻漸曰 井水下. 其曰井取汲多者, 蓋汲多則氣通而流活耳, 終非佳品. 養水取白石子入甕中, 雖養其味, 亦可澄水不瀆.⁷⁸⁾

72)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0.

73)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1.

74)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1.

75)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1.

76)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8.

77) 金明培. 中國의 茶道. 서울. 明文堂. 2007. p.319.

78)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8.

井은 맑은 것이니, 샘이 맑고 깨끗한 것이다. 통하는 것이니 샘에서 나온 물을 소통하여 쓰는 것이다. 법이며 절도이니, 법처럼 사는 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물로 음식을 절도 있게 하여 다함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물이 맑은 것은 음에서부터 나와서 그런 것이오, 그것이 소통되어 흐린 곳에 들어가고, 그 법과 절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음에 말미암는다. 맥이 어두우면 맛이 체하니, 그래서 鴻漸(陸羽)이 우물물을 하품에 놓았다. 그가 우물은 많이 길는 것을 취한다 했는데, 대개 물을 많이 길으면 기가 통하고, 흐르는 것이 활발해지니, 끝내 좋은 품질이 될 수가 없다. 물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 흰 돌을 취해서 독 속에 넣는데, 비록 그 맛을 좋게 하지만, 또한 물을 맑게 하여 흐려지지 않게 한다.

井은 샘을 파서 우물 井字로 沈木을 놓아 물이 고이게 하여 퍼서 쓰는 것이다. 淸은 井과 비슷한 음으로 訓한 것이다. 샘이라는 것은 이런 저런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니 四通八達의 뜻을 취해 通이라 한다. 법이고 절이라는 것은 사람은 옮겨갈 수 있어도 우물은 자리를 바꿀 수가 없으므로 절도를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옮길 수 없는 우물 주변에 사람이 살도록 정하는 것 그것을 절도라고 하였고, 다른 의미로는 물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을 절도 있게 해 먹게 하고, 다함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육우는 우물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그래야 기가 통하고 흐르는 것이 활발해 진다고 하였고, 또 그래서 좋은 품질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고인 물이 되지 않아 먹을 수는 있지만, 흐름이 활발해지므로 고요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므로 좋은 품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東醫寶鑑』에 井華水, 寒泉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井華水는 새벽에 처음 길은 우물물을 말하는데, 성질은 평하고 맛이 좋고 毒이 없다. 사람이 크게 놀라 九竅로 피가 나는 증세의 치료를 주관하고 또 입에 냄새를 없애고 顏色을 좋게 하고 눈의 군살과 예막을 씻어 없애고 술 마신 후의 열나는 이질을

치료한다. 이는 우물에서 아침에 제일 먼저 길은 것이다. 井華水란 天一眞精의 氣로 떠서 水面에 맺힌 것이다. 그러므로 취해서 補陰하는 약제를 달이거나 修練還丹 하는데 쓸 수 있는데 오늘의 淸閑을 즐기는 선비가 매일 봄차를 달인 것을 취해서 머리와 눈을 맑고 원할하게 하는데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은 그 性味가 雪水와 같은 것이다. 井華水는 약을 먹거나 약을 달이는데 아울러 쓰고 술과 醋를 넣으면 썩지 않게 된다.(井華水 性平味甘無毒. 主人大驚 九竅出血 亦主口臭 好顏色 洗目膚腎 及酒後熱痢 此 井中 平朝 第一汲者(『本草』). 井華水者 天一眞精之氣 浮結于水面 故 可取以烹煎補陰之劑 及修煉丸丹之用 今好淸之士 每日取以烹春茗 而謂淸利頭目 最佳 其性味 同於雪水也(『正傳』). 井華水 服藥煉藥並用之 投酒醋 令不腐(『本草』).)”⁷⁹⁾고 하였다. 또 “寒泉水는 곧 좋은 우물물을 말한다. 성질이 평하며 맛이 달고 毒이 없으며 消渴과 反胃, 열나는 이질, 열나는 임질을 치료하며 겸해서 漆瘡를 씻어 치료하며 대소변을 원활하게 한다.(寒泉水 卽好井水也. 性平味甘無毒. 主消渴 反胃 熱痢熱淋 兼洗漆瘡 利大小便(『本草』).)”⁸⁰⁾고 하였다. 정화수와 한천수 모두 우물에서 길은 물을 얘기 하는데, 어느 시간에 물을 길었는가도 물의 기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받는 것은 물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정갈한 물인지 아닌지도 물의 품질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高子曰 井水美者, 天下知鐘冷泉矣, 然而焦山一泉, 余曾味過數四, 不減鐘冷. 惠山之水, 味淡而淸, 尤為上品. 吾杭之水, 山泉以虎跑為最, 老龍井、眞珠寺二泉亦甘. 北山葛仙翁井水, 食之味厚. 城中之水, 以吳山第一泉首稱, 予品不若施公井, 郭婆井二水淸冽可茶. 若湖南近二橋中水淸, 農取之烹茶妙甚, 無伺他求.⁸¹⁾

79)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69.

80)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69.

81) 高濂. 趙立勛 外 四人 校注. 遵生八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p.298.

고령이 말하였다. 우물물 중에서 맛있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鐘冷泉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焦山의 한 샘을 내가 일찍이 4번 정도를 먹어본 적이 있다. 鐘冷泉보다 그 맛이 떨어지지 않는다. 惠山의 물맛이 담담하고 맑아서 진실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항주의 물은 산속에 있는 샘물로는 虎跑泉을 최고로 친다. 老龍井과 眞珠寺 두 곳의 샘물도 또한 달다. 北山의 葛仙翁의 집에 있는 우물물은 마셔보면 그 맛이 두텁다. 성중의 물은 吳山の 第一泉을 으뜸으로 일컫는데, 내가 맛보니 施公井과 郭婆井의 두 곳의 샘물이 차서 차를 끓일 수 있는 것만 같지 못하였다. 湖南의 二橋 사이에 가까운 물은, 새벽에 길어서 차를 다리면 아주 묘하니, 다른 것을 구하기를 엿볼 필요가 없다.

惠산의 물과 虎跑泉, 老龍井과 眞珠寺, 北山의 葛仙翁의 집에 있는 우물물, 施公井과 郭婆井은 高濂이 직접 맛을 보고 평한 것으로 보여 진다. 田藝衡의 『煮泉小品』에는 나오지 않는 구절이다.

『東醫寶鑑』의 水部에는 본래 33種의 물이 수록되어 있는데 논천수와 연결하여 설명한 28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과 같다. 좁쌀죽의 윗물인 漿水, 덩겁 끓인 물인 熱湯, 시루뚜껑에 맺혀 있는 물인 甌氣水, 놋그릇에 맺힌 물인 銅器上汗, 목은 승냥물 炊湯이 있다. 水部 33종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마지막에 六天氣에 대한 설명이 있다. 六天氣는 “복용하면 사람이 배가 고프지 않게 하고 오래 살고 얼굴색을 좋게 한다. 능양자는 『明經』에서 말하기를 봄에 朝霞를 먹는다는 것은 해가 뜰 무렵에 동으로 향하는 기이다. 가을에 비천을 먹는 것은 해질 무렵의 서쪽으로 향한 기요, 겨울에 항해(깊은 밤중에 내리는 이슬 기운)를 마시는 북방의 야반의 기요, 여름에 정양을 먹는 것은 남방 해 속의 기이다. 天玄과 地黃의 기를 아우르면 이것이 6기가 되는 것이다. (六天氣 服之 令人不飢 長年 美顏色(『本草』). 陵陽子 明經 言春食朝霞 日欲出時 向東氣也. 秋食飛泉 日欲沒時 向西氣也. 冬食沆瀣 北方夜半氣也. 夏食正陽 南方日中氣也. 并天玄地黃之氣 是爲六氣(『本草』).

)⁸²⁾라고 하였다. 이것은 동서남북 방향과 시간, 계절의 영향과 하늘과 땅의 기를 합하여 6개의 기를 복용하면 배도 고프지 않고 오래 살고 안색이 좋아져 마치 신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水部의 마지막에 6개의 자연의 기를 이야기 하면서 끝맺고 있다는 것은 氣生水함을 말하며 더 나아가 자연의 환경이 우리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은 ‘論泉水’를 통해 물을 단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생성되는 원리부터 물이 흐르는 환경이 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몸에 좋은 물, 경우에 따라서 약으로 쓸 수 있는 물로 구분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論泉水’에서 설명하고 있는 물은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물이어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물을 얻는 방법과는 많이 다르다. 옛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물을 취할 수는 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음식이나 약 뿐 아니라 어떤 기운의 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의 영향을 받고 성질이 바뀌는 것이 물 뿐 아니라 음식이나 약재, 우리 몸에도 해당되는 것임을 알고, 주변 환경에 대해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인간이 어떤 기운을 받고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IV. 결 론

『遵生八牋』의 ‘論泉水’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高濂은 『遵生八牋』 「飲饑服食牋」 ‘茶泉類’의 ‘論泉水’에서 물을 石流, 清寒, 甘香, 靈水, 井水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이는 『煮泉小品』의 10가지 기준 중 5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와 관련된 물의 품질을 논했다기보다는 사람이 먹어서 좋은 물, 먹을 수 있는 물, 먹으면 안 되는 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82) 許浚, 李南九 懸吐註釋,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1373.

2. 論泉水의 서두에서 산에서 나오는 물 중 流泉, 石池, 漫流, 폭포수, 솟구치거나, 소리를 내며 세차게 흐르는 물로 구분하였고, 관련된 물로 『東醫寶鑑』에서는 순류수와 급류수가 있었고, 『本草綱目』에서는 아정수가 있다.

3. 石流에는 산에서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 흐르지 않는 샘과 솟아오르는 물로 구분하였고, 관련된 물이 『東醫寶鑑』에는 천리수, 요수, 감란수, 역류수가 있다.

4. 淸寒에서는 맑고 차가운 물, 단단한 얼음, 온천수 등을 얘기하였는데, 관련된 물이 『東醫寶鑑』에서는 동상, 하빙, 옥정수, 생숙탕, 온천(유황천), 마비탕, 조사탕, 지장수, 냉천이 있다.

5. 甘香에서는 물맛이 단맛이 나면서 향이 나는 물이 좋은 물이라 하였고, 관련된 물이 『東醫寶鑑』에서는 국화수가 있다.

6. 靈水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로 비와 이슬, 눈과 잔물, 낙수물 등으로 구분하였고, 관련되는 물이 『東醫寶鑑』에는 반천하수, 방계수, 추로수, 매우수, 남설수, 박, 춘우수, 벽해수, 옥류수, 모옥누수가 있고, 『本草綱目』에는 감로가 있다.

7. 井水에서는 샘이 맑고 깨끗한 우물물에 대해 설명하였고, 관련된 물이 『東醫寶鑑』에서는 정화수, 한천수가 있었다.

References

<Paper>

1. EA Kim. The Assessment Methods for Tea Water in China and Geographical Conditions.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1. p.2.
2. YD Jahng. A Study on the Mutual Relation between Water in Jueuk and for Tea. Wonkw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1.
3. DB Jeon. A study of literature on tea water. Mokpo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7. p.2.

<Book>

1. R Go original work. RH Cho et al.. Junsangpaljeon(遵生八牋). Beijing. In Min Wi Saeng Publishing Co. 2008. pp.295-298.
2. MB Kim. Chinese Teatism. Seoul. Myeong Mun Dang. 2007. pp.273-319.
3. KS Keum ed.. Medical Chinese character. Dae Jeon. JuMin publishing co. 2007. p.17.
4. Y Do original work. DJ Kwon trans. Kobanyeosa(考槃餘事). Seoul. Eulyoou publishing co. 1972. p. 163.
5. BS Yoon. Teatismclassic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04. p.72, 147, 196, 200.
6. SJ Lee original work. GJ Jin trans. Bencao Gangmu Tongyuk. Beijing. Hakwonbooks. 1992. p.224, 238.
7. HJ Jang ed.. China Historically Name Dictionary. Shanghai. ShanghaiKoJeok Publishing Co. 1999. p.149, 1990.
8. The National College of Orientalmedicine. Herbal Medicine Jointly Textbook. Editing Commission. Herbal Medicine. Seoul. Young Rimsa. 2011. p.695.
9. H Jun original work. NG Lee trans. Donguibogam(東醫寶鑑). Seoul. Bubinbooks. 2011. pp.1369-1373.